

목포시, 20개 현안사업 전담조직 신설

맛의 도시 브랜드화·섬 경관숲 조성 등 추진 TF팀 운영키로 지역발전 사업 소극적 대처 탈피...선제적 대응 위해 역량 집중

목포시가 각종 현안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국별로 '현안사업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은 서남권 관광선도도시 건설, 맛의 도시 특구 조성 등 신규 공모사업을 비롯해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 숲 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신규 현안사업 수요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기존 업무 추진과 인력 부족 등

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지연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목포시의 주요 현안사업은 8월8일 제1회 섬의날 행사, 낭만항구 가을여행 프로그램(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목포사랑운동, 2022 전국제전 준비(이상 자치행정복지국), 해상케이블카, 맛의 도시 브랜드화,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이상 관광경

제국),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이상 도시발전 사업단) 등 총 20개 사업이다.

이들 20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출산휴가·육아 휴직·병가 등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해 각 부서에서 인력 증원에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현안업무 추진 부서에서도 전담 추진 인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기동근무를 위한 인력 차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현재 정원 대비 66명이 결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 인사부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각 국(단)장 책임 하에 국(단) 소속 직원들로 '현안사업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운영 안에 따르면 팀장은 담당과장이 맡고, 팀원은 담당 계장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국별로 자율 운영하되 주 1회 이상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현안사업 추진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공모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민선 7기 역점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부서별 월별 업무량과 초과 근무 현황조사 등 조직 분석을 통해 차기 인사 시 부서간 정원 조정을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립도서관,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2022년까지 40억 투입 리모델링

목포 시립도서관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지난 1989년 신축돼 30년이 경과한 시립도서관의 각종 시설과 설비가 노후화 돼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못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습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이달 초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은 최우선적으로 1

층 현관 우측에 15인 용 승강기가 설치되고 지하와 2층, 3층, 4층의 천정 석면 절거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4층까지 각종의 출입문에 투명 방화유리문이 설치되고 열람실의 전등도 LED 등으로 전면 교체된다. 이어 화장실 리모델링과 냉난방 시설 교체는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호성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건물 외벽 보강과 휴식공간 설치 등 노후화된 도서관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시립도서관은 부지 9184㎡에 연면적 5774㎡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1989년 건립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건립된지 3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목포 시립도서관을 매년 10억원씩 4년동안 40억을 투입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단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토론회 상설화 추진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해

시정질문 실시간 생중계도

목포시의회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비회기 중 상임위 토론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김휴환 목포시의회의 의장은 20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정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홈페이지를 재정비해 완전 개편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시정 질문을 실시간

으로 공개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들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 소통창구'가 개설된다.

가칭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마련, 이 코너에 안건이 올라와 시민 300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식 시의회 의제로 채택해 집행부 보고는 물론 사안별로 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의견 참여 폭을 높여겠다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민원 성격의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다.

이 같은 소통창구 기능 신설과 함께 카테고리 메뉴 변경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홈페이지 편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해 시정 질문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의장은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이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담아내고 실시간으로 의회 각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할 것"이라면서 "목포시 정책에 대한 소통과 이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이어 그는 비회기를 이용해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가 상설화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목포시 예산, 임성지구, 맛의 도시 선포 이후 후속 대책 부재, 해상케이블카 안전 등의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휴환 목포시의회의 의장은 "토론회 상설화로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시민에게 보다 한발 다가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최근 목포에서 영화드라마 20여 편이 촬영되는 등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 슈퍼. <목포시 제공>

목포시, 한류 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선정

관광콘텐츠·마케팅 확대

목포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목포시는 한류드라마 지역 촬영지 활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에는 2차 심사를 거친 14개 지자체 중에서 합천군, 오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공모선정으로 지원받은 국비 5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드라마 촬영지 관광환경 조성, 관광콘텐츠 및 마케팅 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목포시에서는 크고 작은 20여 편의 드라마 및 영화가 촬영됐으며, 조만간 영화 롱 리브디깅, 뜨거운 피,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등이

개봉·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12월 개봉한 영화 1987 촬영지인 서산동 '연희네 슈퍼'는 촬영 당시의 모습으로 리모델링 및 관광상품화 해 현재까지 총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또 올 해 7월 tvN을 통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여진구 주연 작품으로, 목포 근대역사관 1관을 주인공들의 주요 스토리 전개 장소인 호텔로 설정·촬영해 방영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목포가 드라마 및 영화 제작 관계자들에게 촬영지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빈집 활용 조례 시의회 통과...정비 사업 탄력

목포시가 '어르신 한술자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등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본격화(광주일보 5월 14일자 11면 보도)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돼 빈집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현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차 간소화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조례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실태조사, 대상 빈집의 확보, 빈집 정비 방법과 지원, 빈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현완 목포시의회의 의원은 "공가와 폐가 등을 이용한 범죄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물론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과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현재 목포시의 빈집 현황은 총 1777동으로 목원동(442동)과 유달동(421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당1동(201동), 만호동(180동), 죽교동(126동)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상태가 매우 불량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집은 목원동 112동과 유달동 91동 등 총 384동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